



일 지역 고등학생의 성문제 행동

김 현 옥¹⁾ · 박 광 숙²⁾ · 전 미 숙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들은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무분별한 성관계의 증가와 성병, 미혼모, 낙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고등학생의 이성교제도 상당부분의 신체적 접촉에서 나아가 성교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청소년의 구체적 성문제 행동 파악과 함께 그에 따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김혜원, 2003;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시기는 이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추구하는 성욕(性慾)적 사랑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속해 있어 건강한 사회성 및 성격발달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성정체감 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때이다(유안진, 김혜선, 1998).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성인잡지, 비디오, CD, 인터넷 등의 외설적인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충동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으며, 그 속에 담겨진 폭력성도 극단적인 성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우려를 낳는 등 청소년들의 성문제 행동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진환, 2003). 그리고 청소년 성장간 및 남녀 혼숙의 증가(정하성, 2000), 장시간 동안 부모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과후 활동 제한으로 인해 나타나는 방과후 집에서의 성행위 증가(Cohen, Farley, Taylor, Martin, & Schuster, 2002)와 함께 많은 십대들의 조기

성경험이 또래의 놀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과 깊은 관련성 맺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Kinsman, Romer, Furstenberg, & Schwarz, 1998).

우리나라 청소년 성문제 행동 중 성폭력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는 2003년 2,077건, 2004년 2,866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여성가족부 정책총괄과, 2005),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39.3%가 20세 이상인 것에 비해 20세 미만의 피해율은 60.7%로 높으며, 성폭력 피해자중 44.2%가 청소년이었다(박옥임, 조연숙, 송민선, 김정숙, 2007). 또한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2005년 7.8%, 2006년 8.4%)과 여학생의 임신경험(2005년 0.5%, 2006년 0.7%)의 증가와, 중학생(0.3%)보다 고등학생(0.7%)의 임신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고(보건복지부, 2007), 미혼모의 경우 낙태율이 20세 이하군이 20세 이상군보다 두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세 이하 군이 위험군으로 간주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그리고 청소년 시기의 성문제 행동은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자아개념의 변화 및 자아존중감의 상실과 함께 대인관계 기피증, 성의 상품화 문제가 발생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한상철 등, 2003).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문제 행동은 다양하고 무분별한 대중매체 접촉으로 인한 잘못된 성지식과 성행동 습득, 부모의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자녀 감독 소홀, 또래 놀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 조기 성경험, 낙태 그리고 성장간 등의 성문제 행동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주요어 : 성, 지식, 문제 행동

- 1)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전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부교수
- 2) 김제 백석초등학교 보건교사(교신저자 E-mail: sug8296@hanmail.net)
- 3) 완주 고산초등학교 보건교사

있으며, 이러한 것은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해야 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문제 행동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성문제 행동 유형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단지 인터넷 상담담 내용을 분석하여 성문제 행동유형을 분류한 연구(김진숙, 강진구, 2000; 옥복연, 2000)와 임신, 성폭력, 성지식, 성경험 등 단순 성행동에 대한 실태 분석만 있을 뿐(김혜원, 이해경, 2002; 정신숙, 2000;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본 연구자는 발달단계상 이성애(異性愛)가 강한 고등학생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성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어떤 성문제 행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지식습득 경로를 조사하고 성문제 행동을 파악하여 고등학생에게 가장 빈발하는 성문제 행동과 성문제 행동 발생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성문제 행동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중재 및 집단 치료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설정과 성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고등학생의 성문제 행동을 조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 지역 고등학생의 성문제 행동을 파악한다.
- 일 지역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와 성문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200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전라북도 내 14개 전체 시군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내 14개 지역을 대도

시, 중·소도시, 군 소재 지역으로 분류하여 대도시 1개 지역, 중소도시 1개 지역, 군 소재 1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지역별 고등학생의 비율에 따라 대도시 지역 4개 학교, 중소도시 지역 4개 학교, 농촌지역 2개 학교를 표출하고, 표출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 반씩을 무작위표출하여, 표출된 학급의 학생 수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 수는 대도시 지역 960명, 중소도시 160명, 농촌 지역 30명 총 1,150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5년 11월 현재 전라북도 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전체의 3.93%에 해당하였다.

연구 도구

● 성문제 행동

고등학생의 성문제 행동 조사도구는 김진숙과 강진구(2000), 옥복연(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문제 상담에서 나타난 성문제 유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조사 도구는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단어 사용과 문장 이해 정도를 파악한 후, 간호학 교수 1인, 성교육 전문가 2인,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3인과 함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성문제 행동 조사 도구는 자위행위 1문항, 성충동 6문항, 관음증 1문항, 성폭력 5문항, 물품음란증 2문항, 성매매 2문항, 노출증 1문항, 임신 경험 1문항으로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성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28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표출된 각 학교의 관리자, 성교육 담당교사, 담임교사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협조에 대한 동의를 얻어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대행 담당교사에게 질문지 회수방법, 비밀유지나 자료수집 과정 시 주의할 사항을 연구자가 직접 알렸으며,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며 설문지의 응답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한 후 참여 희망자에게만 배부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가 보고식에 의해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1,150부 중 1,04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0.8%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94부를 제외하고 951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χ^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45.7%(435명), 여학생이 54.3%(516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435(45.7)
	Female	516(54.3)
	Total	951(100.0)
Grade	1 grade	543(57.1)
	2 grade	346(36.4)
	3 grade	62(6.5)
	Total	951(100.0)
School type	Academic	603(63.4)
	Vocational	348(36.6)
	Total	951(100.0)
Residential district	Largest city	764(80.3)
	Middle city	157(16.5)
	Rural	30(3.2)
	Total	951(100.0)
Living together family	Parent	800(84.5)
	Remarriage parent	29(3.1)
	One parent	91(9.6)
	Other family	27(2.8)
	Total	947(100.0)
Parent working status	Working together	496(52.5)
	Working one parent	421(44.5)
	Parent unemployment	28(3.0)
	Total	945(100.0)
The route of the sexual knowledge acquisition	Peer group or senior member	332(35.8)
	Internet	277(29.8)
	School taking lesson & teacher	174(18.8)
	Multimedia (TV · Newspaper · Magazine · Book)	78(8.4)
	Parent	67(7.2)
	Total	928(100.0)
	Frequency of masturbation/ week	1~2
3~4		61(18.4)
5~6		19(5.7)
7~8		19(5.7)
9~10		7(2.1)
more than 11		30(9.1)
Total		331(100.0)

* n(%) : It was except to make no response and subjects impertinent.

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57.1%(543명), 2학년 36.4%(346명), 3학년 6.5%(62명)였다.

고등학교의 계열별 분포는 인문계 63.4%(603명), 실업계 36.6%(348명)였으며, 거주 지역별 분포는 대도시 80.3%(764명), 중소도시 16.5%(157명), 농촌 3.2%(30명)를 차지하였다.

동거가족형태는 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가 84.5%(800명)였고 재혼한 부모와 동거 3.1%(29명), 한 부모와 동거 9.6%(91명), 부모 아닌 다른 가족과 동거 2.8%(27명)였고, 부모경제활동으로는 맞벌이 가정이 52.5%(496명), 두 분 중 한 분만 직업이 있는 가정은 44.5%(421명), 두 분 모두 실직한 가정은 3.0%(28명)였다.

성에 관한 지식은 친구 및 선배(35.8%), 인터넷(29.8%)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외에 학교 수업 및 선생님 18.8%, TV·신문·잡지·책 8.4%, 부모님 7.2%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은 친구 및 선배,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자위 횟수는 1주일 동안 1~2회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3~4회 18.4%, 5~6회와 7~8회 각각 5.7%, 9~10회 2.1%, 11회 이상 9.1%였다. 따라서 자위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1주일 동안 자위 횟수는 1~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1회 이상의 과도한 자위행위를 하는 대상자도 9.1%가 있었다.

성문제 행동

대상자가 경험한 성문제 행동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위행위 36.7%, 성충동 35.6%, 관음증 12.6%, 성폭력 9.6%, 물품음란증 4.1%, 성매매 3.5%, 노출증 3.1%, 여학생의 임신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문제 행동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가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49.1%,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 42.3%, 자위행위경험 36.7%,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 31.5%, 이성친구와 성관계 욕구 21.0%, 타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 16.2%, 내가 강제로 타인의 몸을 만진 경험 14.4%, 다른 사람의 벗은 몸을 훑쳐보면서 즐거워 함 12.6%, 타인이 강제로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요구당한 경험 9.0%, 성충동 조절에 대한 괴로움 7.2%, 이성의 속옷에 대한 성충동 경험 5.3%. 성매매 권유를 받아 본 경험 5.2%, 타인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 피해 경험 5.1%, 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험 3.2%, 타인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즐거움을 얻음 3.1%, 이성의 속옷을 훑친 경험 3.0%, '성매매 경험 1.8%, 여학생의 임신 경험 및 임신중절수술 경험 .6% 순으로 성문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The sexual problem behavior

Area	Sexual problem behavior	Yes	No	Total
		n(%)	n(%)	n(%)
Masturbation	Masturbation experience	346(36.7)	598(63.3)	944(100.0)
	Total	346(36.7)	598(63.3)	944(100.0)
Sexual impulse	Embrace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591(62.5)	354(37.5)	945(100.0)
	Kiss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464(49.1)	481(16.4)	945(100.0)
	Feel like sleeping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400(42.3)	546(57.7)	946(100.0)
	Body touch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298(31.5)	648(68.5)	946(100.0)
	Anguish about sexual impulse control	199(21.0)	747(79.0)	946(100.0)
	Sexual intercourse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68(7.2)	878(92.8)	946(100.0)
	Total	2,020(35.6)	3,654(64.4)	5,674(100.0)
Voyeurism	It is a pleasure with voyeur a nude of another person	119(12.6)	828(87.4)	947(100.0)
	Total	119(12.6)	828(87.4)	947(100.0)
Sexual violence	Experience that another person touched compulsorily on my body	153(16.2)	793(83.8)	946(100.0)
	Experience that touched compulsorily on another person body by me	136(14.4)	809(85.6)	945(100.0)
	Experience that is damaged sexual intercourse compulsorily by another person	85(9.0)	861(91.0)	946(100.0)
	Experience that another person is touched compulsorily on his body by me	48(5.1)	897(94.9)	945(100.0)
	Experience that was sexual intercourse compulsorily by me	30(3.2)	915(96.8)	945(100.0)
	Total	452(9.6)	4,275(90.4)	4,727(100.0)
Transvestism	Sexual impulse experience about underwear of opposite sexual	50(5.3)	896(94.7)	946(100.0)
	Experience that robbed underwear of opposite sexual	28(3.0)	918(97.0)	946(100.0)
	Total	78(4.1)	1,814(95.9)	1,892(100.0)
Prostitution	Experience that is asked prostitution	49(5.2)	895(94.8)	944(100.0)
	Experience that did a prostitution	17(1.8)	927(98.2)	944(100.0)
	Total	66(3.5)	1,822(96.5)	1,888(100.0)
Exhibitionism	It is a pleasure with expose one's the sexual organs before another person	29(3.1)	918(96.9)	947(100.0)
	Total	29(3.1)	918(96.9)	947(100.0)
Pregnancy	Pregnance experience & induced abortion experience(Female student)	3(.6)	511(99.4)	514(100.0)
	Total	3(.6)	511(99.4)	514(100.0)

* n(%) : It was except to make no response.

따라서 대상자의 30%이상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은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 자위행위경험으로 대상자의 가장 큰 성문제 행동은 이성에 대한 성충동과 자위행위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문제 행동

성문제 행동 중에서 대상자의 30%이상이 경험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특성과 성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자위행위

대상자의 특성과 자위행위 경험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자위행위 경험은 남학생 76.6%, 여학생 3.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544.18, p=.000$), 계열별로는 인문계 32.6%, 실업계 43.7%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11.72, p=.001$).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지역 거주자 41.7%, 농촌지역 20.0%, 중소도시지역 1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4.25, p=.000$). 그러나 학년($\chi^2=3.76, p=.152$), 동거가족형태($\chi^2=1.87, p=.600$)와 부모의 경제활동($\chi^2=2.20, p=.332$)은 자위행위 경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자위행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이성친구와 포옹하고 싶은 욕구의 경험은 남학생 76.6%, 여학생 50.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67.35, p=.000$), 계열별로는 인문계 59.1%, 실업계 68.4%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8.05, p=.005$).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 67.5%, 중소도시 42.9%, 농촌 3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2.17, p=.000$). 그러나 학년($\chi^2=.12, p=.943$), 동거가족형태($\chi^2=$

<Table 3>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sexual problem behavior N(%)

Characteristics	Category	Masturbation experience		Embrace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Kiss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Body touch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Feel like sleeping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Gender	Male	330(76.6)	101(23.4)	331(76.6)	101(23.4)	304(70.5)	127(29.5)	276(63.9)	156(36.1)	257(59.5)	175(40.5)
	Female	16(3.1)	497(96.9)	260(50.7)	253(49.3)	160(31.1)	354(68.9)	124(24.1)	390(75.9)	41(8.0)	473(92.0)
	$\chi^2(p)$	544.18(.000)		67.35(.000)		145.65(.000)		152.08(.000)		288.67(.000)	
Grade	1 grade	190(35.1)	352(64.9)	337(62.3)	204(37.7)	262(48.4)	279(51.6)	221(40.8)	321(59.2)	140(25.8)	402(74.2)
	2 grade	127(37.2)	214(62.8)	214(62.6)	128(37.4)	169(49.4)	173(50.6)	152(44.4)	190(55.6)	135(39.5)	207(60.5)
	3 grade	29(47.5)	32(52.5)	40(37.1)	22(62.9)	33(37.1)	29(62.9)	27(43.5)	35(56.5)	23(37.1)	39(62.9)
	$\chi^2(p)$	3.76(.152)		.12(.943)		.53(.766)		1.21(.549)		19.05(.000)	
School type	Academic	194(32.6)	402(67.4)	353(59.1)	244(40.9)	266(44.5)	332(55.5)	235(39.3)	363(760.7)	155(25.9)	443(74.1)
	Vocational	152(43.7)	196(56.3)	238(68.4)	110(31.6)	198(57.1)	149(42.9)	165(47.4)	183(52.6)	143(41.1)	205(58.9)
	$\chi^2(p)$	11.72(.001)		8.05(.005)		13.90(.000)		5.95(.015)			
Residential district	Largest city	318(41.7)	444(58.3)	514(67.5)	247(32.5)	407(53.5)	354(46.5)	365(47.9)	397(52.1)	271(35.6)	491(64.4)
	Middle city	22(14.5)	130(85.5)	66(42.9)	88(57.1)	49(31.8)	105(68.2)	29(18.8)	125(81.2)	23(14.9)	131(85.1)
	Rural	6(20.0)	24(80.0)	11(36.7)	19(63.3)	8(26.7)	22(73.3)	6(20.0)	24(80.0)	4(13.3)	26(86.7)
	$\chi^2(p)$	44.25(.000)		42.17(.000)		30.29(.000)		50.66(.000)		32.44**(.000)	
Living together family	Parent	295(37.1)	500(62.9)	497(62.5)	298(37.5)	386(48.6)	409(51.4)	338(42.5)	458(57.5)	251(31.5)	545(68.5)
	Remarriage parent	12(42.9)	16(57.1)	17(60.7)	11(39.3)	14(50.0)	14(50.0)	13(46.4)	15(53.6)	11(39.3)	17(60.7)
	One parent	29(32.2)	61(67.8)	57(62.6)	34(37.4)	46(50.5)	45(49.5)	36(39.6)	55(60.4)	24(26.4)	67(73.6)
	$\chi^2(p)$	1.87(.600)		.04(.998)		.63(.890)		.78 (.854)		1.93(.587)	
Parent working status	Working together	187(37.9)	307(62.1)	312(63.2)	182(36.8)	249(50.4)	245(49.6)	208(42.0)	287(58.0)	162(32.7)	333(67.3)
	Working one parent	144(34.6)	272(65.4)	259(62.1)	158(37.9)	199(47.7)	218(52.3)	175(42.0)	242(58.0)	119(28.5)	298(71.5)
	Parent unemployment	13(46.4)	15(53.6)	15(53.6)	13(46.4)	12(42.9)	16(57.1)	13(46.4)	15(53.6)	13(46.4)	15(53.6)
	$\chi^2(p)$	2.20(.332)		1.07(.587)		1.09(.581)		.22 (.896)		4.93(.085)	

* n(%) : It was except to make no response. ** Fisher's exact test

.04, $p=.998$)와 부모의 경제활동($\chi^2=1.07$, $p=.587$)은 이성친구에 대한 포용 욕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이성친구와 포용하고 싶은 욕구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는 남학생 70.5%, 여학생 31.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chi^2=145.65$, $p=.000$), 계열별로는 인문계 44.5%, 실업계 57.1%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13.90$, $p=.000$).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 53.5%, 중소도시 31.8%, 농촌 2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chi^2=30.29$, $p=.000$). 그러나 학년($\chi^2=.53$, $p=.766$), 동거가족형태($\chi^2=.63$, $p=.890$)와 부모의 경제활동($\chi^2=1.09$, $p=.581$)은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따라서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여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거주자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

이성친구와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욕구는 남학생 63.9%, 여학생 24.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chi^2=152.08$, $p=.000$), 계열별로는 인문계 39.3%, 실업계 47.4%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5.95$, $p=.015$).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 47.9%, 농촌 20.0%, 중소도시 1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0.66$, $p=.000$). 그러나 학년($\chi^2=1.21$, $p=.549$), 동거가족형태($\chi^2=.78$, $p=.854$)와 부모의 경제활동($\chi^2=.22$, $p=.896$)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Table 3>.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는 남학생 59.5%, 여학생 8.0%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chi^2=288.67$, $p=.000$), 학년별로는 1학년 25.8%, 2학년 39.5%, 3학년 3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9.05$, $p=.000$).

계열별로는 인문계 25.9%, 실업계 41.1%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chi^2=23.47$, $p=.000$),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35.6%, 중소도시 14.9%, 농촌 1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2.44$, $p=.000$). 그러나 동거가족형태($\chi^2=1.93$, $p=.587$)와 부모의 경제활동($\chi^2=4.93$, $p=.085$)에 따른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Table 3>.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 3학년이 1학년보다,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 습득은 친구 및 선배,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지식을 얻는 경로가 친구, 인터넷, TV나 영화 순으로 친구나 대중매체가 성지식의 중요 습득원임을 밝힌 김혜원과 이해경(2002), 이태학(2002)의 연구와 또래나 선배를 통해 자위행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는 김현실(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친구 및 선배, 인터넷을 통해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지식을 친구 및 선배, 인터넷에서 습득한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이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통설은 많이 알고는 있으나,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며(김혜원, 이종민, 2001), 성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단편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지나친 호기심과 성욕구 자극을 받고 있다(이태학, 2002). 뿐만 아니라 정신숙(2000)의 연구에서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의 성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성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가 올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성의식 및 성가치관 정립 혼란과 성문제 행동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이 ‘학년별로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성교육 교재가 재미가 없어서 성적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청소년 위원회, 2006)고 나타난 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자신의 성고민을 비체계적 경로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성교육 학습활동을 통해 지식을 얻고 해결할 수 있는 학습모형이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은 영역별로 자위행위 36.7%, 성충동 35.6%, 관음증 12.6%, 성폭력 9.6%, 물품음란증 4.1%, 성매매 3.5%, 노출증 3.1%, 여학생의 임신

0.6%로 가장 큰 성문제 행동은 이성에 대한 성충동과 자위행위였으며, 고등학생의 30%이상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은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62.5%,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49.1%,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 42.3%, 자위행위 경험 36.7%,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 31.5%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옥복연(2001)이 학력별로 상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이 성충동에 대한 상담요청이 많았다고 보고한 것과 중, 고등학교 여학생의 44.1%가 포옹, 33.7%가 뽀뽀, 30.8%가 키스경험이 있다고 한 손정남(2002)의 결과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54.1%가 포옹, 30.8%가 키스경험이 있다고 한 장순복, 이선경과 전은미(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고등학생이 이성에 대한 성충동 욕구에 민감함을 알 수 있으며 성충동 조절에 대한 교육적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은 성충동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개발원, 1993). 본 연구에서는 자위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58.9%가 1주일 동안 1~2회, 18.4%가 3~4회 자위행위를 한다고 나타나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1주일에 1~2회 자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9.1%는 11회 이상의 과도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들 중 33.7%가 자위행위 경험이 있고 40.9%가 1주일에 1~2번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혜원(2003)의 연구 결과보다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김현실(2001)의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79.6%가 자위행위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 자위행위가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으며, Kinsey, Pomeroy와 Martin의 연구(김현실, 2001에 인용됨)와 Kinsey, Pomeroy, Martin과 Gebhard의 연구(김현실, 2001에 인용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62%가 생애의 한 시점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13~15세가 되면 사정(射精)능력이 생기게 되어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어 이시기의 자위는 자연발생적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때(청소년개발원, 1993) 자위행위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reud는 청소년에게 자위행위와 지적인 생산성 사이에 기계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만약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신경쇠약상태가 초래되어 학습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위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다(박진생, 1991). 이러한 것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위행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자위행위의 횟수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문제 행동 중에서 30%이상은 미치지 못하지만 고등학생 성문제 행동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성일탈적 행동으로 관음증 12.6%, 성폭력 9.6%, 물품 음란증 4.1%, 성매매 3.5%, 노출증 3.1%, 여학생의 임신 0.6%

가 확인되었다. 성폭력에 있어서는 청소년위원회(2006)가 일 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17.9%가 강제적인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임신과 성매매에 있어서는 손정남(2002)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0.19%가 임신 경험이 있었고, 돈을 받고 성교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0.19%로 나타난 결과와 고등학교 여학생의 임신 경험율이 0.5%였다는 장순복 등(2002)의 연구결과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더욱 성문제 발생위험률이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과거 보다 성교육이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성문제 행동에 따른 예방 교육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문제 행동 주제별 성교육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음증, 물품음란증, 노출증 등의 성일탈적 문제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심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함을 해석할 수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다른 비교 연구가 없어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임신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여학생 임신이 0.6%로 나타났지만 신미식(2002)은 미국의 청소년 임신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 청소년의 임신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한국 청소년의 경우 피임을 사용하는 비율이 미국 청소년의 4분의 1도 못되고 있으며, 낙태비율 또한 70-80%의 높은 비율로 산부인과 아닌 불법 낙태 시술소에서 17%가 시술받는다고 한 결과를 보았을 때 10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30%이상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과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자위행위 경험,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 등은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대도시 거주자가 농촌과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대상자의 성별, 계열, 거주지역이 성문제 행동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체 성문제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및 김진예(2001)의 연구 결과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위행위와 관련된 불안 경험 및 성충동이 경험이 더 높다는 김윤정과 이창식(2004)의 연구, 그리고 김혜원과 이해경(2002)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대다수는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위행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2005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청소년 위원회, 2006) 결과 일반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경험에서 성별

로는 남자가 6.7%로 여자 2.1%보다 높았고,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거주자가 5.1%로 중소도시 4.4%와 읍면지역 거주자 2.6%보다 높으며, 실업계가 인문계 보다 성관련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용 음란물과 유흥업소나 퇴폐업소가 주변에 있는 경우가 청소년의 성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정진숙, 2000)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성비행에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한 이춘화, 윤옥경, 조아미 및 강지명(2006)의 연구결과로 볼 때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지역 거주자가 성문제 행동 경험이 높은 것은 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성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성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무작위로 표출된 대도시 1개 지역, 중소도시 1개 지역, 군 소재 1개 지역에 재학중인 남녀 고등학생 951명이었다. 자료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2005년 11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28일까지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χ^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습득 경로는 친구 및 선배 35.8%, 인터넷 29.8%, 학교수업 및 선생님 18.8%, TV·신문·잡지·책 8.4%, 부모님 7.2%였다.
- 대상자가 경험한 성문제 행동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위행위 36.7%, 성충동 35.6%, 관음증 12.6%, 성폭력 9.6%, 물품 음란증 4.1%, 성매매 3.5%, 노출증 3.1%, 여학생의 임신 0.6%였다.
- 고등학생의 성문제 행동 중에서 30%이상의 경험률을 나타낸 것은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62.5%,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49.1%,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 42.3%, 자위행위 경험 36.7%,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 31.5%였으며, 자위행위 횟수는 1주일 동안 1~2회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11회 이상의 과도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9.1%가 있었다.
- 고등학생의 성문제 행동 중에서 30%이상의 경험률이 있는 성문제 행동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관계에서 자위행위 경험은 성별($\chi^2=544.18$, $p=.000$), 계열별($\chi^2=11.72$, $p=.001$), 거주 지역별($\chi^2=44.25$, $p=.0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경험은 성별($\chi^2=67.35$, $p=.000$), 계열별($\chi^2=8.05$, $p=.005$), 거주지역별($\chi^2=42.17$, $p=.0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경험은 성별($\chi^2=145.65$, $p=.000$), 계

열별($\chi^2=13.90$, $p=.000$), 거주지역별($\chi^2=30.29$, $p=.0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의 경험은 성별($\chi^2=152.08$, $p=.000$), 계열별($\chi^2=5.947$, $p=.015$), 거주 지역별($\chi^2=50.66$, $p=.0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성친구와 자고 싶은 욕구는 성별($\chi^2=288.67$, $p=.000$), 학년별($\chi^2=19.05$, $p=.000$), 계열별($\chi^2=23.47$, $p=.000$), 거주지역별($\chi^2=32.44$, $p=.0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고등학생은 성에 관한 지식을 친구 및 선배,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자위행위와 성충동의 성문제 행동이 가장 높았으나 성일탈적 행동도 일부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성문제 행동이 주로 대상자의 성별, 계열, 거주지역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성충동과 자위행위 조절뿐만 아니라 성문제 행동 예방 및 성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김윤정, 이창식 (2004). 청소년들의 성충동과 성충동 대처간의 관계에서 성태도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397-419.

김진숙, 강진구 (2000).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 개발연구*. 7.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진환 (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김현실 (2001). 청소년 자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정신간호학회지*, 10(2), 137-147.

김혜원 (2003). 남자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5(2), 309-328.

김혜원, 이종민 (2001).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청소년학회지*, 9(1), 247-272.

김혜원, 이해경 (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 분석: 성별, 학교별, 거주지별 비교. *청소년학연구*, 9(1), 247-272.

보건복지부 (2007). *제 2차(2006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박옥임, 조연숙, 송민선, 김정숙 (2007). 일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 실태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27-35.

박진생 (1991). 어린이의 자위행위와 정신성적 발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204-205.

손정남 (2002).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 예측모형 구축*.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신미식 (2002). *한국청소년의 성, 임신에 대한 현황분석 및 대*

- 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여성가족부 정책총괄과 (2005). 2005 여성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옥복연 (2000). 사이버 성상담에 나타난 청소년 성교민 유형과 실태.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유안진, 김혜선 (1998).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김진예 (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 윤옥경, 조아미, 강지명 (2006).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태학 (2002). 중학생의 성문제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장순복, 이선경, 전은미 (2002). 10대 여학생의 성경험 여부에 따른 성문제 예방대책.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3), 325-334.
- 정신숙 (2000). 청소년 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정하성 (2000). 청소년 성문제와 성교육 실시 방향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4, 35-45.
- 청소년개발원 (1993). 청소년 심리학. 서울: 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0대 여성 임신실태 및 예방 대책 연구.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위원회 (2006).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청소년위원회.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 문제 행동 -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Cohen, D. A., Farley, T. A., Taylor, S. N., Martin, D. H., & Schuster, M. A. (2002). When and where do youths have sex? The potential role of adult supervision. *Pediatr Rev*, 110(6), 1-6.
- Kinsman, S. B., Romer, D., Furstenber, F., & Schwarz, D. F. (1998). Early sexual initiation: The role of peer norms. *Pediatr Rev*, 102, 1185-1192.

Sexual Problem Behaviors in High School Students

Kim, Hyeon-Ok¹⁾ · Park, Gwang Sug²⁾ · Jeon, Mi Suk³⁾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 Health Teacher, Baeksuk Primary School, 3) Health Teacher, Gosan Primary School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sexual problem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in one province, North Cholla.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951 high school students, grades 1, 2 and 3, chosen at random in big cities, small towns and rural areas of North Cholla Province. **Result:** The routes for sexual knowledge acquisition were through a peer group or an older member(35.8%), internet(29.8%), classes and the teacher at school(18.8%), multimedia(8.4%) and parents (7.2%). The percentages for domains of sexual problem behaviors were masturbation 36.7%, sexual impulse 35.6%, voyeurism 12.6%, sexual violence 9.6%, transvestism 4.1%, prostitution 3.5%, exhibitionism 3.1%, and pregnancy of a female student 0.6%. Sexual problem behaviors experienced by 30% or more of the students were reported as the experience of the desire to embrace, the desire to kiss, the desire to touch a friend's body of the opposite sex, masturbation and the desire to sleep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The biggest sexual problem behaviors for the students were sexual impulses toward friends of the opposite sex and masturbation. These experience rates were higher for boys than for girls($p<.05$), higher vocationally than academically($p<.05$), and higher in the largest cities than smaller cities and rural area($p<.05$).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ystematic programs that focus on a problem solu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for sexual problem behavior prevention.

Key words : Sex, Knowledge, Sexual behavio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Gwang Sug
Baeksuk Primary School
543-1 Heungsa-Dong Kimje-Shi, Jeollabuk-Do 576-150, Korea
Tel: 82-63-545-1314 Fax: 82-2-546-9435 E-mail: sug8296@hanmail.net